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 [제II보] - 2006~2009년 화보에 나타난 여자의한복을 중심으로 -

이영애 · 김순구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coration Techniques Applied to Traditional HanBok [Part II] - Focusing on Traditional HanBok for Women that were Delivered between 2006 and 2009 -

Young-Ae Lee and Soon-Ku Kim

Dept. Design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classifying the types of decor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of modern style which are shown in relevant monthly magazine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que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ypes of decor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re classified into single and composite types according to decorative components. In the traditional costume of the former type, a quite many of gold and silver foils and embroideries are found. While, in that of the latter type,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decorations, gold and silver foils and embroideries, embroideries and seonchigi or embroideries and stitches is usually used. These decoration techniques are usually applied to some parts of the costume like git, kkeutdong or cuffs, somae or sleeves, jacket or jeogori, the lower hem of the skirt and between joined parts in the skirt. More notably, Korean traditional costumes for women shown in monthly magazines released during the period as mentioned above were investigated to find that a part of the women's clothes, that is, skirt was in most cases decorated with brilliant embroideries. Used together with the techniques, patterns are usually applied onto embroideries and gold or silver foils. Most of the patterns are flower in shape. The main material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is fabrics that have brilliant patterns on the surface and are commercially available irrespective of season. Consequently, since 2010, flower motive patterns which are important in modern fashion trend will be used in embroideries, gold and silver foils. Additionally, embroideries such as seakdong, applique, drawing made with modern style will be the main stream of new HanBok style.

Key words: traditional HanBok, decoration technique, classification of types, formative characteristics

1. 서 론

전통한복은 우리의 민속의상으로 계승 발전하여 오면서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천사를 겪어 왔으며 현대에는 일상복보다는 예복으로 중요한 역할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실용적인 소재, 형태 및 장식이 아닌 우아한 자태와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을 가미하며 변화하고 있다. 민속 풍의 이미지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소재, 색상, 장식 등에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거의 매 시즌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고 소멸될 만큼 그 구성과 형태에 있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통한복에 대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최근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자수, 문양, 금·은박, 패치워크등의 장식기법들을 응용하여 한복디자인을 개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수진(2006)는 기계자수의 표현효과, 김귀임(2003)은 누비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 여다영(2003)은 퀼트기법을 응용한 생활한복 디자인, 이영애(2002)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한복디자인 연구, 이현상(2004)은 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 최선미, 양숙향(2007)은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생활한복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을 하였다.

90년대 이후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패션의 동향이 민족의 독특성으로 에스닉과 자연이미지를 추구하였고 전통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소재와 원단 색으로 복고풍도 강조하면서 자수, 금·은박, 색배합, 그림그리기, 누비 등 장식기법들이 즐겨 사용되어져 유행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통한복의 장식기법에는 자수, 금·은박, 색동, 조각잇기,

Corresponding author; Soon-Ku Kim
Tel. +82-51-320-1855, Fax. +82-51-628-8171
E-mail: skkim9912@hanmail.net

Table 1. 한복 전문잡지에서 발췌한 전통한복의 자료 내역

분 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장식기법이 있는 경우	67	25	46	59	197(66.1)
장식기법이 없는 경우	36	17	26	22	101(33.9)
소 계	103(34.5)	42(14.1)	72(24.2)	81(27.2)	298(100)

아플리케, 선치기, 스티치, 누비, 그림그리기, 잣물림, 매듭, 핀터 염색 등이 있으며,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기법을 가미하여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하덕순(1993)은 80년대~현대(1992년)까지, 정혜경, 박영희(2004)는 1995년~2002년까지의 장식문양의 종류와 기법을 연구하였고, 이현숙(2006)은 1986년~1997년까지의 한복에 나타난 장식성을, 정혜경(2006)은 1990년대 중반이후 남북한 전통의상 장식문양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장식기법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으나 2000년대 이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행주기의 변화가 날로 짧아지고 있으며 장식기법이 전통한복 유행을 주도하는 요소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최근의 장식기법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는 전통한복 디자인 유행을 예측하며 현재 및 미래의 전통한복을 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통한복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 및 전통의 보존과 계승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자료라 사료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한복 전문 월간잡지 ‘한복’(2006~2009년)과 ‘자연염색과 우리옷’(2006~2008년)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잡지들은 매월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복업체의 불황으로 격월 또는 계절별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자료는 한복 잡지에 수록된 전통한복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월간잡지 ‘한복’의 자료는 2006년 1월호인 Vol. 39호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도의 9월호(마지막 호)인 Vol. 63까지 25권과 ‘자연염색과 우리옷’의 자료는 2006년 1월호인 130-4에서 2008년 9월호인 130-18까지 15권을 합하여 총 40권의 한복 전문잡지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내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잡지에서 수집된 자료의 수는 총 298점으로, 그 중 장식기법이 있는 경우는 197점으로 66.1%이고, 장식기법이 없는 경우는 101점으로 33.9%를 나타내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자료분석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장식기법이 나타나는 전통한복 자료 197점을 선별하여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과 사용부위, 문양을 분석하고, 총 298점을 대상으로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저고리의 특성을 깃, 길이, 배래, 끝둥, 고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지 화보의 전통적인 저고리 치마 구성의 성인 여자한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원단명, 분석에 사용된 참고 치수 등은 한복구성학 안명숙 외(2007), 한복구성학 박영순(1997))와 업체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색상은 한국색채연구소에서 편찬한 『우리말 색이름 사전』과 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단 샘플 북을 참고로 사용하였다.

Table 2.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종류

연구자	분류	장식기법의 종류
하덕순(1993)		염색(침염, 날염, 공예염, 교염, 판염, 호염), 자수(손수, 기계수, 컴퓨터 자수), 금박, 아플리케, 혼합기법(염색과 자수, 염색과 아플리케, 아플리케와 자수)
이영애(2002)		염색(침염, 날염, 공예염, 교염, 판염, 호염), 자수(손수, 기계수, 컴퓨터 자수), 금박, 아플리케, 혼합기법(염색과 자수, 염색과 아플리케, 아플리케와 자수)
정혜경 · 박영희(2004)		자수, 금박과 은박, 조각보, 아플리케, 잣물림, 상침질, 파이핑, 그림찍기, 나염, 그림그리기, 핀터, 폴라주
정혜경(2006)	전통적인 장식기법	자수, 금 · 은박, 색동 및 조각보, 그림 찍기, 그림그리기
	현대적인 장식기법	구슬, 스팅글, 플라운스, 러플, 브레이드, 파이핑, 콜라주
이현숙(2006)	바느질기법	바이어스 선끼우기, 색동, 조각잇기, 잣물림, 자수, 아플리케
	박(箔)장식	금박, 은박
	염색	날염, 침염, 방염(백색방염, 착색방법, 특수기법), 발염

3. 결과 및 분석

3.1. 장식기법의 종류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종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하덕순(1993)과 이영애(2002)는 염색, 자수, 금박, 아플리케, 혼합기법으로 분류하였고, 정혜경, 박영희(2004)는 자수, 금박과 은박, 조각보, 아플리케, 잣물림, 상침질, 파이핑, 그림찍기, 나염, 그림그리기, 핀터, 폴라주 등으로 분류하였고, 정혜경(2006)은 이를 다시 전통적인 장식기법과 현대적인 장식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현숙(2006)은 바느질기법, 박장식, 염색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을 금·은박, 자수, 색동, 조각잇기, 아플리케, 선치기, 스티치, 누비, 그림그리기, 잣물림, 매듭, 핀터, 수모, 염색, 혼합기법(복합형 I, II, III; Table 3 참조)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3.2. 구성요소에 따른 장식기법의 유형

구성요소에 따른 장식기법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구성요소에 따른 장식기법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하고, 복합형은 다시 두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복합형 I과 세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복합형 II, 네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복합형 III으로 분류한다. 장식기법이 나타나는 전통한복 자료 총 197점 중 단독형은 136점으로 69%, 복합형은 61점으로 31%로 단독형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합형의 경우 복합형 I이 24.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합형 III은 0.5%로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단독형의 경우 총 136점 중 금·은박(Fig. 1)과 자수(Fig. 2, 3)가 각각 45점과 44점으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고, 이 외에 스티치, 선치기, 아플리케, 누비, 염색, 핀터, 수모 등이 단독형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또한 단독형에 사용된 장식기법 중에서 아플리케와 염색을 제외한 모든 장식기

법들이 복합형에도 사용되었다.

Fig. 1~Fig. 3은 모두 단독형으로 사용된 장식기법이다. Fig. 1은 깃과 섶, 고름, 소매의 배래부분에는 수복(壽福)문이, 화장부위에는 보상당초문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Fig. 2는 치마말기에 꽃과 나비를 화려하게 수를 놓아 장식하였고, Fig. 3은 저고리의 가슴부위와 1/2소매쪽(소매 끝에 따로 잇는 끝동 외)에 소매 수구쪽을 중심으로 소매의 약 1/2아래쪽에 들어가는 장식이나 문양을 지칭함)에 꽃과 잎을 수놓았는데, 자수기법을 이용하여 꽃잎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장식한 점이 매우 특이하다.

복합형의 경우 총 61점 중 복합형 I이 49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복합형 II가 11점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복합형 III은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복합형 I의 경우 금·은박과 자수가 조합되거나(Fig. 4), 자수와 선치기, 자수와 스티치가 조합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Fig. 4는 화려한 꽃수가 치마말기에, 깃·고름·결마기에는 마기에는 수복문과 국화문이, 끝동에는 수복천도문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복합형 II의 경우 자수와 색동과 스티치가 조합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Fig. 5). Fig. 5는 고름과 끝동을 제외한 저고리 전체에 꽃과 나비를 수놓고, 두 줄의 색동으로 끝동을, 깃선·섶선·결·색동위에는 짙은 색의 스티치로 장식하였다.

복합형 III의 경우 자수와 색동과 선치기와 스티치로 조합되어 나타났다(Fig. 6). Fig. 6은 깃과 소매에 꽃과 나비를 수놓고, 소매 중간중간에 색동을 규칙적으로 이어붙였으며, 깃선과 섶선에는 선치기로, 끝동선에는 스티치로 장식하였다.

이상에서 금·은박, 자수, 색동 등의 기법은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장식기법 중 금·은박, 자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정혜경(2006)과 같은 결과이며, 선치기와 스티치, 잣물림, 매듭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기법들

Table 3.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분류	구성요소	년도별 N				총 N(출현율: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독형	금·은박	21	5	7	12	45
	자수	10	9	9	16	44
	색동	4		4	8	16
	조각잇기	3			3	6
	아플리케	1			1	2
	선치기	2				2
	스티치	1		2		3
	누비	1				1
	그림그리기	3	2	6	3	14
	염색		1			1
	기타(핀터, 수모 등)			1	1	2
						136(69)

Table 3.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계속)

복* 합 형	복합형 I	금 · 은박+자수	1	3		5	9	49 (24.9)
		금 · 은박+색동				1	1	
		자수+색동	2		1	1	4	
		자수+조각잇기			1	3	4	
		자수+선치기	2	3	2		7	
		자수+스티치	4			2	6	
		자수+누비				1	1	
		자수+수모	1	1			2	
		색동+조각잇기			1		1	
		색동+선치기			4		4	
	복합형 II	색동+스티치	2		1		3	61(31)
		조각잇기+스티치			2		2	
		조각잇기+매듭			1		1	
		선치기+그림그리기	1		2		3	
		스티치+그림그리기	1				1	
		<hr/>						
		금 · 은박+자수+핀터				1	1	
		자수+색동+선치기	1				1	
	복합형 III	자수+색동+스티치	1		2		3	11(5.6)
		자수+조각잇기+스티치	1			1	2	
		자수+선치기+스티치	1	1			2	
		색동+선치기+잣물림	1				1	
조각잇기+스티치+매듭		1				1		
복합형III		자수+색동+선치기+스티치	1				1	1(0.5)
소 계		67 (34)	25 (12.7)	46 (23.4)	59 (29.9)		197 (100)	

* 복합형: 장식기법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한 기법으로 명명한다.

Fig. 1. 단독형: 금박 (한복, Vol.57, p.38)

Fig. 2. 단독형: 자수 (한복, Vol.59, p.63)

Fig. 3. 단독형: 자수 (한복, Vol.60, p.11)

은 단독형으로 쓰였으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법들이 조합됨으로써 한복에 있어 장식성과 화려함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대 후반기의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유형은 전반기에 비해 단독형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반면 복합형의 유형은 줄어들고 그 비중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기의 한복에는 모든 종류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나타

남으로써 장식기법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면, 후반기의 경향은 전반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지나친 장식성과 화려함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은근한 멋스러움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3.3. 사용부위에 따른 특성

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사용부위별로 정리하면

Fig. 4. 복합형I: 금박+자수
(한복, Vol.44, p.28)

Fig. 5. 복합형 II: 자수+색동+스티치
(한복 Vol.57, p.71)

Fig. 6. 복합형III: 자수+색동+선 치기+스티치
(한복, Vol.44, p.30)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통해 장식기법의 유형을 사용부위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480점 중 자수가 151점(31.5%), 금·은박이 136점(28.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스티치가 45점(9.4%), 색동이 38점(7.9%), 선치기가 34점(7.1%), 그림그리기가 31점(6.5%), 조각잇기가 24점(5.0%)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수모, 애플리케, 매듭, 핀터, 누비, 잣물림, 염색 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자수, 금·은박, 색동 등의 기법이 단독형과

Table 4. 사용부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유형	사용부위(N)	N(출현율: %)
금·은박	깃(32), 끝동(30), 고름(25), 저고리(15), 치마(15), 결마기(14), 섹(4), 소매(1)	136(28.3)
자수	저고리(41), 소매(27), 끝동(23), 치마말기(23), 깃(20), 치마(9), 섹(4), 동정(3), 결마기(1)	151(31.5)
색동	소매(26), 치마(4), 끝동(3), 깃(2), 저고리(1), 섹(1), 진동(1)	38(7.9)
조각잇기	저고리길(6), 끝동(6), 치마(3), 깃(3), 소매(3), 섹(2), 고름(1)	24(5.0)
애플리케	저고리길(2), 치마(1), 소매(1)	4(0.8)
선치기	깃선(16), 섹선(6), 진동선(6), 끝동선(3), 수구끝(1), 치마폭(1), 소매(1)	34(7.1)
스티치	깃선(18), 끝동선(13), 섹(7), 도련(2), 수구끝(2), 동정(1), 진동(1), 소매(1)	45(9.4)
누비	저고리(1), 도련(1)	2(0.4)
그림그리기	치마(8), 저고리(7), 소매(7), 깃(4), 섹(3), 끝동(2)	31(6.5)
잣물림	깃선(1)	1(0.2)
매듭	치마폭(1), 깃(1), 섹(1), 끝동(1)	4(0.8)
핀터	저고리길(1), 깃(1), 끝동(1), 소매(1)	4(0.8)
수모	수구(3), 깃(2)	5(1.1)
염색	치마(1)	1(0.2)
소계		480(100)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고, 선치기와 스티치, 잣물림, 매듭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금·은박은 깃과 끝동, 고름 등 주로 저고리에 사용되었고(Fig. 1, 4 참조), 자수는 저고리 전체와 소매, 끝동, 깃 등 주로 저고리(Fig. 3, 5, 6 참조)와 치마에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넓은 치마말기(Fig. 2, 4, 13 참조)에 화려한 수를 놓아 장식한 것이 특징적이다. 스티치는 깃선과 끝동선에 주로 사용되었고(Fig. 5, 6 참조), 색동은 주로 소매 전체 또는 소매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Fig. 6 참조), 선치기는 깃선에(Fig. 6 참조), 그림그리기는 치마와 저고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각잇기는 저고리의 길과 끝동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장식기법이 주로 사용된 부위는 깃과 끝동, 소매, 저고리 등과 치마의 밑단이나 폭 사이사이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넓은 치마말기에 화려한 수를 놓아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최근 한국 전통복식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현대의 감성에 부합되도록 세련되게 묘사한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이연영, 이인성, 2007; 변미연 외, 2007; 김영인, 전여선, 2008), 현대적 감성으로 접근한 사극 영상물을 통해 우리사회에서도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이를 색채와 소재 면에서 한복의 현대화 과정을 거쳐 트렌드에 민감한 대중에게 한복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와 한복 시장에서도 새로운 유행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문양의 특성

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문양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총 197점 중 장식기법의 특성상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색동, 조각잇기, 선치기, 스티치, 누비, 기타 등과 이들 기법만으로 조합된 복합형 등의 43점은 제외하였다.

Table 5를 통해 장식기법에 사용된 문양별 출현율을 살펴보

Table 5. 문양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유형	문양의 종류(N)	N(출현율: %)
금·은박	화문(20), 수복문+화문(14), 보상당초문(11), 봉황문(7), 수복문(3), 포도동자문(2), 화접문(2), 길상어문(1), 수복천도문(1), 편복문(1), 한글문(1), 한글문+호접문(1), 운문+봉황문(1)	65(37.6)
자수	화문(60), 화접문(25), 호접문(1), 수파문(1)	87(50.3)
아플리케	화문(2)	2(1.1)
그림그리기	화문(12), 화접문(3), 매화문(2), 소나무문(1)	18(10.4)
염색	물결문(1)	1(0.6)
소 계		173(100)

면, 총 173점 중 자수가 87점(5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금·은박이 65점(37.6%)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그림그리기가 18점(10.4%)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아플리케와 염색이 각각 2점(1.1%)과 1점(0.6%)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금·은박은 화문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외에 수복문과 화문이 조합되어 나타나거나(Fig. 4 참조), 보상당초문(Fig. 1 참조), 봉황문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 나타났고, 자수는 화문(Fig. 3, 10 참조)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며, 그 외에 화접문(Fig. 4 참조)이 사용되어 나타났다. 아플리케와 그림그리기에서도 역시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장식기법에 주로 사용된 문양의 종류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전반기에서와 같이 한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있어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은 비중이지만 자수기법을 이용하여 꽃잎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3.5. 소재의 특성

소재의 특성상 잡지 화보로는 정확한 명칭을 분류하는데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의 한복의 경향은 한복의 예복화와 서구화된 생활 패턴, 경제성장에 의한 난방시설과 이동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향과 이윤창출의 의도가 맞물려 얇고 비치는 특성을 가진 사계절용 소재인 사철깨끼가 생산·판매되기 시작하여 1990년도와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철깨끼용 소재로 많이 쓰여 온 갑사, 생고사, 숙고사, 자미사, 노방 등과 함께 옥사, 생사, 깨끼원단(무늬 없이 깨끼바느질을 할 수 있는 원단으로 업체에서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임) 등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겨울용 소재로는 단과 명주가, 여름용 소재로는 모시와 옥사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침체와 한복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한복의 수요층은 더욱 줄어들어 결혼을 앞둔 신부이거나 성인여성으로, 한 벌로 여러 계절을 입을 수 있는 사계절용으로 시판된 소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2000년대 전반기에 비해 단독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복합형의 유형이 감소하여 한복에 사용된 소재는 주로 바탕에 화려한 무늬가 있는 소재(Fig. 7)가 사용된 점이다. 이는 전반기의 한복에는 모든 종류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장식기법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면, 후반기의 경향은 장식기법보다는 화려한 바탕무늬가 있는 다양하고 현대화된 소재(Fig. 8, 9)를 사용함으로써 지나친 장식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현대화된 세련됨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7. 소재; 저고리·치마 (한복, Vol.57, p.9)

Fig. 8. 소재; 저고리 (한복, Vol.60, p.11)

Fig. 9. 소재; 치마 (한복, Vol.55, p.13)

Table 6. 저고리 깃의 종류별 · 색상별 출현율

깃종류	깃색상(N)	N(출현율: %)
동그래깃	저고리색(32), 초코렛색(5), 치마색(2), 작색(1), 남청색(1), 담황색(1), 보라(1), 비자색(1), 흰색(1), 조각(1)	46(15.4)
당코깃	저고리색(130), 초코렛색(14), 작색(13), 치마색(7), 자주(4), 먹색(3), 황매색(3), 흰색(3), 간장색(2), 보라(2), 대추색(2), 백연두(2), 오디색(2), 가지색(1), 검보라(1), 담자색(1), 두더지색(1), 물색(1), 벽람색(1), 심해색(1), 아마색(1), 아청색(1), 연두(1), 적자색(1), 진녹색(1), 하늘색(1), 호박색(1), 홍색(1), 바다색(1), 조각(1)	204(68.5)
목판깃	저고리색(27), 작색(5), 치마색(4), 꽃분홍(1), 네이비블루(1), 다홍(1), 물색(1), 진분홍(1), 홍색(1)	42(14.1)
반달깃	저고리색(6)	6(2.0)
소 계		298(100)

3.6. 저고리의 특성

저고리의 특성을 깃, 길이, 배래, 끝동, 고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고리 특성 요소에서 깃, 끝동, 고름의 색상은 하나의 장식 기법으로 사용되어 길의 색상과의 관련은 언급하지 않았다.

3.6.1. 저고리 깃

깃은 상의의 목 부위를 감싸는 구성요소로, 세부형태에 따라 반달깃, 목판깃, 반목판깃, 당코깃, 동그래깃 등으로 분류되나, 본 논문에서는 잡지의 화보를 분석하는 특성상 반달깃, 목판깃, 당코깃, 동그래깃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저고리 깃을 종류별 · 색상별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통해 저고리에 나타난 깃의 종류별 · 색상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98점 중 당코깃이 204점(6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동그래깃과 목판깃이 각각 46점(15.4%)과 42점(14.1%)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반달깃은 6점(2.0%)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동그래깃과 당코깃, 목판깃의 색상으로는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초코렛색과 작색, 치마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반달깃에는 저고리색만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깃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동그래깃(Fig. 13)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당코깃(Fig. 12)과 목판깃(Fig. 11)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2000년대 전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반달깃(Fig. 10)이 출현한 점이 특이하

다. 저고리 깃의 색상을 보면, 모든 종류에서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는 현대인의 감성에 부합되도록 세련되게 묘사한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당코깃의 비중이 높아지고, 화려한 바탕무늬가 있는 다양하고 현대화된 소재를 사용한 반면 깃의 색상을 차분하고 안정되게 저고리색과 같은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3.6.2. 저고리 길이

저고리의 길이를 종류별로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통해 저고리 길이의 종류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98점 중 일반적인 길이가 249점(83.6%)으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짧은 길이의 저고리(Fig. 2, 13 참조)와 긴저고리가 각각 26점(8.7%)과 23점(7.7%)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저고리의 길이에서는 종전에 쓰여졌던 일반적인 저고리의 길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 나타났으며, 조선중기의 저고리 길

Table 7. 저고리 길이의 종류별 출현율

길이의 종류	N(출현율: %)
짧은 길이 (21~24 cm)	26(8.7)
일반적인 길이 (25~27 cm)	249(83.6)
긴저고리 (37~40 cm)	23(7.7)
소 계	298(100)

Fig. 10. 깃; 반달깃
(한복, Vol.54, p.67)

Fig. 11. 깃; 목판깃
(한복, Vol.60, p.22)

Fig. 12. 깃; 당코깃
(한복, Vol.44, p.36)

Fig. 13. 깃; 동그래깃
(한복, Vol.53, p.14)

Table 8. 저고리 배래의 종류별 출현율

배래의 종류	N(출현율: %)
등근배래	158(53.0)
직배래	140(47.0)
소 계	298(100)

이인 긴 저고리와 함께 2000년대 전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극히 짧은 길이의 저고리가 출현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역시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유행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길이는 여전히 전통한복이 일상복이 아닌 특별한 날 입는 예복으로 인식되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치마의 길이는 길게, 저고리의 길이는 일반적인 길이가 지속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3.6.3. 저고리 배래

저고리의 배래를 종류별로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을 통해 저고리 배래의 종류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98점 중 등근배래가 158점으로 53.0%, 직배래가 140점으로 47.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저고리의 배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등근배래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직배래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점이 특이하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극히 적은 비중으로 나타난 직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과 함께 배래의 폭이 좁아져 활동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3.6.4. 저고리 끝동

저고리의 끝동을 유형별·색상별로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Table 9를 통해 저고리 끝동의 유형별·색상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98점 중 유형IV가 93점(31.2%)으로 가장 높은 비

중을 나타내고, 끝동이 없는 경우와 유형II가 각각 72점(24.2%)과 66점(22.1%)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유형III이 55점(18.5%)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유형I이 12점(4.0%)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유형IV와 III의 끝동의 색상으로는 흰색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저고리색과 작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유형IV에서는 먹색이 사용된 경우도 보인다. 유형II는 흰색과 초코렛색이, 유형I은 자주와 자두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끝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구 끝에 스티치, 선치기, 동물의 털로 장식한 예도 보인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끝동은 종전에 쓰여졌던 일반적인 끝동의 너비인 유형II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유형IV와 유형III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끝동의 너비가 넓어지고, 색상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넓은 흰색의 끝동 그 자체가 장식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 위에 자수나 금박 등으로 장식하기 위해 끝동의 너비가 넓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3.6.5. 저고리 고름

저고리의 고름을 종류별·색상별로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고름의 길이는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기준으로 긴고름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중간길이는 무릎과 허리선 사이 길이, 짧은 고름은 허리선 위의 길이로 설정했다.

Table 10을 통해 저고리 고름의 종류별·색상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98점 중 짧은고름이 119점(4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긴고름과 중간고름이 각각 91점(30.5%)과 84점(28.2%)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고름이 없는 경우가 4점(1.3%)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짧은고름의 색상으로는 저고리색과 작색, 홍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긴고름은 치마색과 작색이, 중간고름은 초코렛색과 저고리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름이 없는 경우에는 매듭단추와 브로치로 고름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고름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긴고름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짧은고름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색상으로는 저고리색과 함께 작색, 치마색, 초코렛색이 가

Table 9. 저고리 끝동의 유형별·색상별 출현율

끝동의 종류 (끝동너비)	끝동색상(N)	N (출현율: %)
유형 I (2~3 cm)	자주(2), 자두색(2), 흰색(1), 저고리색(1), 치마색(1), 남청색(1), 담청색(1), 박하색(1), 연자주(1), 주황(1)	12(4.0)
유형 II (4~6 cm)	흰색(16), 초코렛색(16), 치마색(7), 홍색(5), 작색(5), 저고리색(2), 색동(2), 남색(2), 자주(1), 검보라(1), 남청색(1), 담등꽃색(1), 먹색(1), 벽람색(1), 보라(1), 비자색(1), 아청색(1), 오디색(1), 진녹색(1)	66(22.1)
유형 III (8~10 cm)	흰색(34), 저고리색(5), 작색(3), 조각(3), 홍색(2), 치마색(1), 자주(1), 초코렛색(1), 남청색(1), 두더지색(1), 두록색(1), 지황색(1), 색동(1)	55(18.5)
유형 IV (12 cm 이상)	흰색(41), 먹색(6), 저고리색(5), 작색(4), 조각(3), 황매색(3), 치마색(2), 겨자색(2), 담청색(2), 물색(2), 비취색(2), 백연두(2), 초코렛색(1), 자주(1), 간장색(1), 네이비블루(1), 홍색(1), 대추색(1), 두록색(1), 마젠타(1), 바다색(1), 벽청색(1), 보라(1), 심해색(1), 아마색(1), 어린알색(1), 인삼색(1), 자두색(1), 지황색(1), 초록(1), 주황(1)	93(31.2)
끝동이 없는 경우	끝동이 없는 경우(66), 수모(3), 스티치(2), 선치기(1)	72(24.2)
소 계		298(100)

Table 10. 저고리 고름의 종류별 · 색상별 출현율

고름의 종류	고름색상(N)	N(출현율: %)
긴고름	치마색(11), 작색(9), 저고리색(8), 초코렛색(8), 자주(7), 홍색(7), 보라(6), 진분홍(4), 자두색(3), 파랑(3), 가지색(2), 검보라(2), 대추색(2), 벽담색(2), 진달래색(2), 남보라(1), 남청색(1), 녹청색(1), 담황색(1), 두더지색(1), 등꽃색(1), 먹색(1), 무궁화색(1), 벽돌색(1), 비자색(1), 아청색(1), 오디색(1), 진녹색(1), 코스모스색(1), 흰색(1)	91(30.5)
중간고름	초코렛색(15), 저고리색(12), 치마색(8), 작색(8), 홍색(5), 자주(4), 먹색(3), 보라(3), 바다색(2), 백연두(2), 진분홍(2), 가지색(1), 감청색(1), 금잔화색(1), 꽃분홍(1), 남청색(1), 담황색(1), 물색(1), 비취색(1), 사파이어색(1), 살구색(1), 심해색(1), 아마색(1), 연분홍(1), 적자색(1), 주황(1), 진달래색(1), 청자색(1), 파스텔블루(1), 파랑(1), 황매색(1)	84(28.2)
짧은고름	저고리색(19), 작색(15), 홍색(13), 치마색(11), 초코렛색(7), 자주(4), 보라(4), 간장색(3), 먹색(3), 지황색(3), 담자색(2), 담청색(2), 담황색(2), 대추색(2), 도라지꽃색(2), 마젠타(2), 물색(2), 아청색(2), 어린잎색(2), 주황(2), 가지색(1), 네이비블루(1), 녹청색(1), 박하색(1), 백연두(1), 벽청색(1), 연두(1), 연자주(1), 은회색(1), 인삼색(1), 자두색(1), 진분홍(1), 파랑(1), 황매색(1), 황매화색(1), 회보라(1), 흰색(1)	119(40.0)
고름이 없는 경우	매듭단추(2), 브로치(2)	4(1.3)
소 계		298(100)

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세련되게 묘사한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당코깃의 비중이 높아지고, 화려한 바탕무늬가 있는 다양하고 현대화된 소재를 사용하며,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직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한복 스타일에서 기네복 스타일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용 부위, 문양,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저고리의 특성을 깃, 길이, 배래, 끝동, 고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식기법의 유형은 구성요소에 따라 단독형(69%)과 복합형(31%)으로 분류된다. 단독형의 경우 금 · 은박과 자수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복합형의 경우 두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금 · 은박과 자수, 자수와 선치기, 자수와 스티치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금 · 은박, 자수, 색동 등의 기법은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고, 선치기와 스티치, 잣물림, 매듭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기법들은 단독형으로 쓰였으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법들이 조합됨으로써 한복에 있어 장식성과 화려함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대 후반기의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유형은 전반기에 비해 단독형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반면 복합형의 유형은 줄어들고 그 비중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기의 한복에는 모든 종류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장식기법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면, 후반기의 경향은 전반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지나친 장식성과 화려함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은근한 멋스러움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장식기법의 사용부위를 보면, 금 · 은박은 깃과 끝동, 고름 등 주로 저고리에 사용되었고, 자수는 저고리 전체와 소매, 끝동, 깃 등 주로 저고리와 치마에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스티치는 깃선과 끝동선에 주로 사용되었고, 색동은 주로 소매 전체 또는 소매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선치기는 깃선에, 그림그리기는 치마와 저고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각깃기는 저고리의 길과 끝동에 주로 사용되었다. 장식기법이 사용된 부위는 깃과 끝동, 소매, 저고리 등과 치마의 밑단이나 폭 사이사이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넓은 치마말기에 화려한 수를 놓아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장식기법에 나타난 문양을 보면, 자수(50.3%)와 금 · 은박(37.6%)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금 · 은박은 화문, 수복문과 화문이 조합되어, 자수는 화문이 많이 사용되어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전반기에서와 같이 한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있어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은 비중이지만 자수기법을 이용하여 꽃잎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소재를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되어 온 사계절용으로 시판된 소재가 주를 이루었으며 바탕에 화려한 무늬가 있는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저고리 깃을 보면, 당코깃(68.5%)이 주로 사용되었고, 깃의 색상은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 시기에는 현대인의 감성에 부합되도록 세련되게 묘사한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당코깃의 비중이 높아지고, 깃의 색상은 차분하고 안정되게 저고리색과 같은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고리 길이를 보면, 일반적인 길이의 저고리(83.6%)가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종전에 쓰였던 일반적인 저

고리의 길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 나타났으며, 조선중기의 저고리 길이인 긴저고리와 함께 2000년대 전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극히 짧은 길이의 저고리가 출현한 점이 특이한데, 이는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유행 현상으로 보여진다.

저고리 배래를 보면, 등근배래(53.0%)와 직배래(47.0%)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등근배래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직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 전반기에는 극히 적은 비중으로 나타난 직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과 함께 배래의 폭이 좁아져 활동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저고리 끝동을 보면, 너비가 12cm 이상인 유형IV(31.2%)가 주로 사용되었다. 끝동의 색상은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넓은 흰색의 끝동 그 자체가 장식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 위에 자수나 금박 등으로 장식하기 위해 끝동의 너비가 넓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저고리 고름을 보면, 짧은고름(40.0%)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긴고름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짧은고름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색상으로는 저고리색과 함께 작색, 치마색, 초코렛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당코깃의 비중이 높아지고, 화려한 바탕무늬가 있는 다양하고 현대화된 소재를 사용하며,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직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한복 스타일에서 기녀복 스타일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이 전·후반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전통한복에 대한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후속으로 본 논문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통한복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특성을 2006년~2009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고, 월간지 화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색상이나 치수에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참고문헌

강수진. (2006). *현대 기계지수의 표현효과 연구 - 꽃 문양 표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귀임. (2003). *누비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인, 전여선. (2008). 한국 영화와 TV드라마 전통복식에 나타난 색 이미지와 상징성. *服飾*, 58(2), 34-37.

박영순. (1997). *전통한복구성*. 서울: 新陽社, p. 60.

변미연, 김민지, 이인성. (2007). 드라마[궁(宮)]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 의상에 관한 연구 - 여주인공 의상을 중심으로. *服飾*, 57(3), 124-135.

안명숙, 박진은, 장현주(2007). *우리 옷 만들기*. 서울: 교문사, p. 56.

여다영. (2003). *퀼트기법을 응용한 생활한복 디자인*.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영, 이인성. (2007). 영화에 나타난 전통 복식의 현대적 표현과 미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영화(조선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을 중심으로. *服飾*, 57(7), 122-136.

이영애. (2002). *아플리케를 응용한 한복문양 디자인 연구* - 서양 건축 물의 창을 모티브로.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상. (2004). *전통 문양을 응용한 한복문양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실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 (2006). *현대 한복의 장식성에 관한 연구 - 1986~1997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경, 박영희. (2004). 한복에 사용된 장식문양을 통하여 본 전통-현대화 작업에 대한 분석 -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4(1), 11-21.

정혜경. (2006). 남북한 전통의상에 사용된 장식문양에 관한 비교연구 -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628-632.

최선미, 양숙향. (2007).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여성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2), 145-150.

하덕순. (1993).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관한 연구 - 80년대~현재까지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색채연구소 편. (2006). *우리말 색이름 사전*. 경기도: 칼라뱅크 커뮤니케이션.

(2010년 9월 13일 접수/2010년 10월 27일 1차 수정/
2010년 11월 28일 2차 수정/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